

# 학교 발전의 밑거름, 평의원회 설립 추진 재개

GIST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설립을 위해 대학평의원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움직이고 있다.

## 대학평의원회 설립 논의 재개

지난 2018년 광주과학기술원법(이하 광주과기원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립이 의무화됐다.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대학 교는 평의원회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GIST는 지난 2018년에 추진위를 구성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9년도 말,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백이 있었으나 올해 7월에 5차 회의를 재개했다.

평의원회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 과정의 운영·연구 ▲교원·직원·연구원·학생의 복지 ▲GIST의 운영에 관해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사항 또한 심의 및 자문한다.

평의원회는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다. 의결 기구에서는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평의원회는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 총장은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조정희 학장은 “평의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모든 대학 구성원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내용이다. 평의원회는 법에 의해 설치되는 기구인 만큼 공식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며 평의원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의 각 직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그 외에 동문 등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회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서는 안 된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공립대의 평의원회 구성원 비율은 교원(47.7%), 직원(22.3%), 학생(17.3%), 동문/기타(12.7%) 순이다. 4대 과학기술원 중 KAIST와 UNIST만 평의원회를 구성했다. 두 기관 모두 교원, 직원, 학생, 외부인사 비율이 5:2:2:2로 11명의 평의원회를 구성했다. GIST는 이에 연구원 직군을 추가해 구성할 계획이다.

## 좁혀지지 않는 평의원수 구성 의견차

직군별 평의원수 구성에 대한 견해차

로 인해 GIST 평의원회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교수평의회는 교원 평의원 수를 5명, 직원 직군에서는 위원 수 균등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과 연구원 직군도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추진위 조직 이후 6번의 회의 동안 구성을 의결하지 못했다.

교수평의회의 주장에 대해 조 학장은 “GIST의 차별점은 연구 분야의 전문적·혁신적 계획 수립과 운영이 학교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다.

또, GIST의 교육 역량은 연구 역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력 창출의 핵심인 교수 직군이 평의원회 참여도에 높은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교수 직군이 이익 집단이 아닌, 중장기적 학교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하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충기 노조위원장은 동수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 “평의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구성원의 비율을 동수로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인원 수가 같지 않으면 소수 의견이 무시되거나 동등하게 취급받지 못할 수 있다. 모든 구성원 의견이 가감 없이 동등하게 수렴되려면 구성 인원수가 같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6차 추진위 회의에 따르면, 연구원 직군은 “GIST는 전임 연구원을 주요 구성원으로 과기원법에 명시했다. 연구원은 주요 기능인 연구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타 구성단위 정원의 최소 인원 2명은 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대학평의원회가 GIST에 미치는 영향

평의원회 설립은 GIST 경영 평가나 대외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송종인 총장직무대행은 “경영 평가는 학교의 예산 지원과 연계돼, 조속한 평의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학장은 “경영 점수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인지도에도 영향을 준다. 평의원회 설립 취지 달성을 위해서라도 평의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학장은 “학생과 같은 소수의 의견이 항상 소극적으로 반영됐다. 이런 창구를 통해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의사가 있다”며 평의원회 설립에 따른 기대점을 언급했다.

배설영 기자 seolyeongbae@gm.gist.ac.kr

## 게임사이트 차단 해제 시범 운영

- 생활관 내 게임 차단 시범 해제
- 주식 투자와 가상 화폐 거래 불가

» 4 면

## 해외대학 여름학기 파견학생 인터뷰

- 시차 부적응 토로
-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운영

» 4 면

## 김희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 거시경제분과로 자문 활동 진행
- 세상의 변화를 대비하며 낙관적으로 생각해야

» 6 면

## 4대 과기원 자체 청렴도 평가 시행

### 청렴도, 4대 과기원 중 최하위 불합리한 제도·낡은 조직문화 원인 개선 위한 구성원 모두의 노력 중요

2021년도 4대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 자체 청렴도 평가에서 GIST는 청렴도 향상 노력 종합점수 최하위를 기록했다. GIST 집행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국공립대학교 청렴도 조사에서 GIST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에서 시행한 청렴도 평가는 전체 평균 점수와 기관의 청렴도 등급만 공개하는데, 4대 과기원은 공통으로 매년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청렴

도 개선을 위한 사항을 4대 과기원에 권고함에 따라 2021년도부터 4대 과기원 자체 청렴도 평가가 시행됐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시행되고, 과기원마다 돌아가며 주관한다. 올해는 KAIST가 주관해 시행했다.

4대 과기원 자체 청렴도 평가는 각 과기원으로부터 300명씩 총 1,2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청렴도 향상 노력 ▲조직 문화제도 ▲연구 분야 ▲행정 분야 ▲청렴 수준 등 총 29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를 시행해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책정했다.

표본 300명은 원내 구성원의 인원 비율에 따라 크게 직원, 교원, 연구원, 박사과정자로 분류돼 산출됐다. GIST는 설문에 평균 57.3%의 응답률을 보였다. 직원의 응답률(67.5%, 126명 중 85명)

에 비해 박사과정자의 응답률(39.5%, 43명 중 17명)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청렴도 평가 결과는 낮은 청렴도의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고자 종합점수와 구성원 인식점수로 나뉘었다.

GIST는 청렴도 향상 노력과 부패 방지 시책 인지도 종합점수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청렴도 향상 노력 종합점수는 4대 과기원 평균 7.29점이나 GIST는 6.49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패 방지 시책에 대한 인지도 측면의 경우 과기원의 평균 점수는 5.88점이나 GIST는 5.4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 3면으로 이어짐 〉

## 보도

# 학생회칙 · 선거세칙 개정을 통한 집행위원회 재개

전교 학생대표자와 총학생회\* 비상 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집행국 재개를 결정했다. 집행국 부재 상태가 이어진지 2년 만이다. 그 과정에서 비대위는 여러 학생회칙과 선거세칙을 개정했다.

## 학생회칙 개정으로 집행국 부재 해결

비대위는 집행국의 부재를 방지하기 위해 집행국 조직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했다. 집행국은 학생들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부서로, 자치회를 종괄하고 행정을 처리한다. 김종민(소재, 20) 비대위장에 따르면, 이번 개정 이전의 학생회칙으로도 비대위 위원장과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 집행국을 꾸릴 수 있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집행국이 지난 2년간 없었다. 이번 개정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집행국을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개정의 요지를 설명했다.

## 총학생회장 후보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

8월 6일에 있었던 선거 세칙 개정에는 차기 총학생회장 후보를 늘리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피선거권이 ‘선거 시행일 기준으로 3학기 이상 이수한 학부생에게만 주어진다’는 세칙을 삭제 후보 지원의 문턱을 낮춘 것이다. 개정안은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군 휴학 등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 피선거권을 가진 인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했다. 또한 총학생회장의 직무수행 능력과 이수 학기 수는 큰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 학생회칙 · 선거세칙 개정안 주요 내용

삽화 = 이윤정 기자

1 학생회장 부재시 집행국의 재개 및 유지
학생회칙 제10장 집행위원회 64조(구성) 다음 조항 추가 ① 집행위원회는 협력국, 소통국, 학술국, 정보국,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② 집행국 각 국장은 각 국에서 선출하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총학생회장 후보 자격 변화
선거세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피선거권) 다음 조항 삭제 피선거권은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회원에게 주어진다. ③ 선거시행일을 기준으로 3학기 이상 이수하지 못한 자
3 권한대행 선출 후보군 및 겸임 가능성
학생회칙 제5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제38조(권한대행) 다음 조항 개정 총학생회 회장단이 모두 결위 시에는 운영위원 중 권한대행을 호선하여... (생략) → 총학생회 회장단이 모두 결위 시에는 집행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호선하여... (생략)... 권한대행은 다른 직과의 겸임을 금한다.

##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선출방식 개정안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선출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운영위원 중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했다. 개정 이후, 집행국 전·현직 국장 12인 중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이에, 김 위원장은 “1학년 때 자치회원이 학교 행정에 관련된 주요 회의에 배석되지 않고 각 자치회에서 하는 일은 총학생회장이 하는 일과 다르다”며 자치회 업무를 잘 수행했더라도 총학생회장까지 잘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대표자도 한 전공에서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 선출되면 대표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집행국에서 권한대행을 호선하면 선출 후보군이 기존 4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적은 후보자수로 인해 국장의 부담감이 커지는 점을 우려했다. 현 국장과 차기 국장들 총 12명의 후보 중에서 다음 권한대행을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 집행위원회의 모집 및 운영방안

현 집행국 국장은 집행국 세칙과 달리 비대위 위원들을 국장으로 임명된다는 방침이 적용됐다. 집행국의 임기는 해당연도의 12월까지인데 9월에 집행국을 조직하니 국장을 원칙대로 선출하면 임기가 3개월가량으로 너무 짧기 때문이다.

2학기 이상 학생회비를 연체하지 않고 하우스 임원,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상설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모든 GIST 대학 학생은 일반 국원이 될 수 있다. 비대위는 8월 16일부터 집행국 국원의 모집을 받고 8월 28일부터 2일 간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그러나 내년 2월에 예정된 총학생회장보궐 선거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될 경우, 신임 회장은 자신이 원하는 국원들로 집행국을 재조직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이 나오지 않으면, 12명의 국장 중 다음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이 선출된다. 또한, 총학생회장 선출과 상관없이 집행국

인수인계 위원회가 이듬해 초에 열려 조직이 개편된다.

집행국은 ▲협력국 ▲소통국 ▲학술국 ▲정보국 ▲사무국 ▲국제교류국 ▲디자인 팀으로 구성되며 각 부서에서 여러 정책들이 시도될 전망이다. 비대위 위원들이 집행국을 꾸려가는 3개 월 동안 학술국이 군 학점 인정 제도를 추진한다. 또한 수학과와 같은 새 전공 제도 도입과 칼텍·MIT와의 교류프로그램도 학술국에서 검토 예정이다.

국제교류국은 집행국에 처음 도입된 부서다. 앞으로 높아지는 캠퍼스 내 외국인 비중과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국제교류국은 다문화 체험 행사 기획, 외국인 학생 커뮤니티 형성 등 GIST의 국제화를 위한 업무를 볼 예정이다.

## 차기 총학생회장에 대한 바람

김 위원장은 “자진해서 총학생회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고 말했다. 한 학년 총원이 만 명이 넘는 종합대학에서도 총학생회장이 부재이고, 5대 과기특성화대학 모두 총학생회장이 없다.

김 위원장은 “본 집행국을 조직함으로써 총학생회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총학생회장의 역할을 집행국 부서별로 분담할 것이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학교에 전하고 학생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GIST 학생 조직화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승현 기자 seunghyeon2@gm.gist.ac.kr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와 혼동할 수 있는 총학생회는 GIST 소속 학생 모두를 의미한다.

# 학부별 학논연 지도교수 허용기준 유지

2021년도 2학기 학사논문연구(이하 학논연) 지도교수 허용기준이 공개되기까지 여러 변화가 있었다.

19학년도 이후부터 학부(과)별 학논연 지도교수 선정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이 생겼다. 이전에는 학부별로 따로 안내된 기준이 없었다.

논문지도교수 선정 기준으로 ▲소속 전공의 겸무 교원인 경우 ▲소속 전공과 공동연구를 하는 교원인 경우 ▲소속 전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교원인 경우 ▲복수전공 소속

교원인 경우에 따라 허용여부가 구분된다.

또한, 각 경우마다 학부(과)의 지도 교수 선정 허용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물리·광과학과는 앞선 네 가지 경우를 모두 허용했다. 반면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와 화학과는 소속 전공의 겸무 교원인 경우와 복수전공 소속 교원인 경우만을 허용했다. 또한 기계공학부와 지구·환경공학부와 생명과학부는 복수전공 소속 교원인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신소재공학부는 금년도 하반기에 지도교수 선정 허용여부 기준이 변경됐다. 상반기에는 복수전공 소속 교원인 경우에 한해 허용했지만, 하반기에는 앞선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조건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타 학부 교원을 지도교수로 지정하려면 신소재공학부 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 학적팀은 “학부(과)마다 모두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단 각자 맞는 교

육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기준이 마련된 이후로 융합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학적팀은 “허용여부 기준은 올바른 융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강조했다.

이정우 기자 jungwoolee@gist.ac.kr

# GIST, 4대 과기원 중 청렴도 노력 종합점수 "꼴찌"

## <1면에서 이어짐>

구성원 인식에 대한 평가는 청렴도 향상 인식에 따른 점수와 기관 차원 청렴도 개선의 긍정적 인식에 대한 점수 모두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4대 과기원 청렴도 향상 노력 인식 종합점수는 기관의 노력이 평균 7.54 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원은 평균 7.03 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에 비해 GIST의 청렴도 향상 노력에 대한 인식은 박사과정자가 6.99점으로 가장 높고, 보직자가 5.7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 차원의 청렴도 개선의 긍정적 인식에 관해 4대 과기원은 교원이 평균 8.39점으로 가장 높고, 연구원이 평균 6.9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GIST는 교원이 7.79점으로 가장 높고, 박사과정자가 5.8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GIST 내부 부패행위를 직접 경험한 사례가 다소 나타났다. 조사 결과 부당 업무지시에 대해 8.3%가, 부당 인사업무에 대해 11.9%가 '직접경험'에 답했다. 부패행위로는 '부당 업무지시'에 대해 업무분장에 어긋나는 업무지시와 과도한 예우 강요가 있었다. '부당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불공정한 인원 배분과 불공정한 업무분장 등을 경험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 낮은 청렴도의 원인 규명, 현실적 개선방안 마련

낮은 청렴도와 부패사건 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 4대 과기원에서 공통으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낮은 조직문화'를 제일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개선방안으로는 ▲상급자 인식 개선 교육 ▲개인 윤리의식 개선 ▲횡령 사례 교육 ▲연구윤리 기준 명확화 ▲명확·합리적 인사 기준 마련 ▲위반자 엄중 처벌 ▲예산 집행 기준 현실화 등이 제시됐다.

부패행위 인지 시 대처 방법으로는 4대 과기원과 GIST 구성원 모두 '내부 신고센터에 신고한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또한 신고자 보호 개선방안으로 '익명 신고시스템 도입 및 활성화'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에 총무팀은 "부패행위 신고는 실명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19년도 이후, 부패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익명 신고로 2년여간 운영하였다. 그러나 익명 신고의 대부분이 근거 없는 허위신고로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2021년 3월 교수 평의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실명 신고로 전환했다. 일반 민원으로는 계속해서 실명과 익명 신고를 모두 접수하고 있다"며 현재 GIST 원내 신고 시스템의 운영 상황을 밝혔다.

2022년 4대 과기원 자체 청렴도 평가는 GIST가 주관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총무팀은 "낮은 청렴도의 원인을 이전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설문 문항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청렴도 개선을 위한 GIST의 노력

과기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GIST는 청렴도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 청렴도 및 반부패 업무를 감사부에서 총장 산하 조직 총무팀으로 이관했다. 또한 향후 차기 총장 선임 시, '기관의 청렴도 개선계획'을 면접 평가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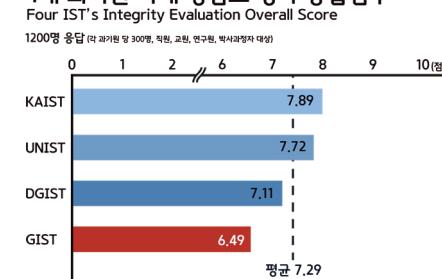
총무팀은 "4대 과기원 중 청렴도가 제일 높은 UNIST의 경우 기관장의 강한 의지와 장기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차기 기관장이 선임되면 기관 중심으로부터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권익위는 각 부서의 청렴도 개선 노력 방안을 조사하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를 진행하는 중이다. 이에 공공재산 환수제도, 갑질 예방 교육 등의 정책 계획이 권익위에 제출됐고 현재 실행 중이다. 집행부는 ▲청렴 가치를 공유하는 문화 조성 ▲자율적 부패 방지 활동 강화 ▲청렴한 GIST 문화 정착 및 확산 ▲대외 청렴 문화 확산 선도의 4 가지 추진 방향에 따라 18개의 세부지표 시행 계획을 권익위에 제출했으며 시행 중이다.

총무팀은 적극적 청렴도 개선 홍보와

삽화 = 이윤정 기자

4대 과기원 자체 청렴도 평가 종합점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6월 22일 GIST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 윤리 및 연구 보안 교육과 청렴 교육을 동시에 시행했다. 6월 24일에는 전체 교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청해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하반기에 전 구성원 중 청렴 교육 미이수자 대상으로 한 번 더 실시될 예정이다. 연구관리팀은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투명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슬기로운 연구 생활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청렴 캠페인, 청렴 배너 설치, 청렴 홍보 물품 배부 등 청렴도 개선 홍보에 힘쓰는 중이다.

총무팀 정의영 씨는 "청렴도 향상의 핵심은 원활한 소통과 홍보"임을 강조하며 학생들뿐 아니라 교원과 직원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에게 청렴도 향상에 대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은찬 기자 eunchan\_supernova@gm.gist.ac.kr

## 비대면 수업 이후 학점 오른다… '학점 인플레이션' 뚜렷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 GIST 학사과정에서 높은 학점을 이수한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이른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학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GIST 학사과정 학생들의 평균 평점이 상승했다. 평균 평점이 4.0 이상인 학생이 2019학년도 1학기 22.2%에서 2021학년도 1학기 34.7%로 12.5% 증가했다.

특히, 학점 인플레이션은 몇몇 학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정 전공의 경우 전공필수과목에서 A 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은 학생 비율이 2019학년도 1학기 57.6%에서 이듬해 1학기 74.6%로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의 주된 원인은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 바뀐 평가 방식이다. 물리·광과학과 박찬용 교수는 "온라인 시험에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염려해 차라리 오픈 북으로 시험을 치렀고, 변별이 어려워 A 학점 이상 비율을 높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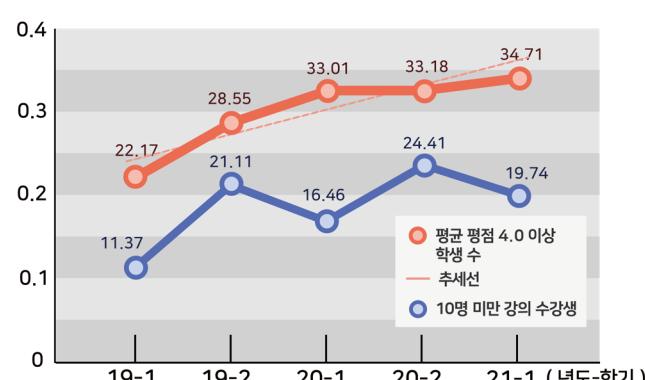
그러나 학적팀은 "학생들의 평점 주제는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10명 미만 강의를 듣는 학생 수에도 영향을 받는다"며 평점 상승이 반드시 비대면 수업 방식 때문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학적팀은 "학생들의 학점 취득에 불이익을 최대한 없애는 방향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원하는 정책"이라며 "본 원을 포함한 대부분 대학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적팀은 "교수 개개인의 평가 기준에 따른 성적 부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있으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적평가 방식 등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적장학금 수혜 인원은 학점

### GIST 평점 상승 현황 (단위 : %)



삽화 = 최정은 기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GIST 학사과정 성적우수장학금 수혜 인원은 최근 다섯 학기 동안 증감이 반복됐다. 성적우수장학금 대상자는 평균 평점 3.85 이상 이수 조건과 장학금 이중 지원 방지 원칙 등을 적용해 선발된다. 학적팀은 "평점뿐만 아니라

지난 한국장학재단 이공계 장학생 선발인원이 축소돼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자 수가 급증하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은찬 기자 eunchan\_supernova@gm.gist.ac.kr

## 보도

#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해외대학 프로그램 향한 열정

작년 코로나19로 인해 일제히 취소됐던 여름학기 해외대학 파견 프로그램이 올해 재개됐다. 2~3학년 28명의 학생이 한국에서 온라인 수업을 청강했고 18명이 미국으로 파견됐다.

## 온라인해외대학 파견의 새 지평 열다

이번 UC 버클리 여름 계절학기 프로그램은 예년보다 적은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8주간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이뤄졌다. 김예은(전경, 20) 학생은 “수준 높은 수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커기에 비대면임에도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GIST에 머무르면서 이미 구연인 사람을 만나거나 반복적인 일상을 경험하기보다는 UC 버클리에서 새로운 환경과 교육을 접해보고 싶었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김예은 학생은 “세분된 플랫폼을 통해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졌다”며 UC 버클리의 체계적인 온라인 수업 시스템에 감탄했다. 그는 “수업 중 자유롭게 질문하고 별도의 오피스아워를 이용해도 된다. 튜터링 세션에 따로 있어 배운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며 학습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보충할 수 있는 점을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꼽았다.

김예은 학생은 “사소한 것도 수시로 질문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배운 것을 응용해 새로운 답변을 제시하는 학생도 있었다. 다른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큰 자극이 됐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는 “비대면 수업이라도 견문을 넓힐 수 있는 UC 버클리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며 프로그램을 추천했다.

## 시차 등 한계점 지적도 있어

UC 버클리 현지 수업을 한국에서 듣는 만큼, 시차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다. 김민서(전경, 20) 학생은 “보통 실습수업은 새벽 3시까지 진행됐고, 실습 결과를 제출하고 나면 새벽 4시에 일과가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동이 틀 무렵 자다 보니 수면시간도 줄었다”며 불규칙한 일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후배들에게 신중히 고려하고 신청할 것을 권했다.

UC 버클리 측은 활동 시간을 조금씩 조정하는 등 시차로 인해 불편함을 겪는 학생들을 배려했다. 김예은 학생은 “기말시험 때 여러 선택지 중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고 전했다.

## 자유롭게 택해 듣는 온·오프라인 수업

6주간 진행된 보스턴 대학 여름학기 프로그램은 보스턴 현지 파견 학생 18명, 국내 잔류 학생 8명을 합쳐 총 26명이 참여했다. 보스턴으로 파견된 모든 학생이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스턴 대학은 학생이 필요에 따라 현장 강의 참여와 원격 접속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LfA(Learn from Anywhere) 제도를 운영 중이다. 보스턴 대학 여름학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동우(전경, 20) 학생은 “언제까지 팬데믹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지원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더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고 성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프로그램에 지원한 이유를 설명했다.

보스턴에 파견된 학생들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불편함은 없었다고 입 모아 말했다. 김동우 학생은 “전반적인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없었다. 미국서 학생으로 살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보스턴에서의 경험을 회상했다.

안효찬(소재, 19) 학생은 “미국에 백신이 많이 보급됐다는 이야기는 들었

다. 실제로 가보니 팬데믹 상황이 거의 종료된 느낌이었다. 나흘에 한 번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빼면 코로나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만 학생들 대부분이 원격으로 참여해 강의실에서 함께 수강하는 인원이 적었던 점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보스턴 현지에 파견된 참가자들은 대부분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분위기다. 안효찬 학생은 “실제 미국인들과 대화하며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 영어 실력 향상과 미국 대학생 활 체험만으로도 참여할 이유는 충분하다”며 이번 해외대학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동우 학생은 “다양한 곳을 찾았더니며 낯선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면서 여름학기 해외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GIST 학생들이 시야를 넓히고 포용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최현빈 기자 chbeen02@gm.gist.ac.kr

# 게임사이트 차단 시범 해제…정식 시행 논의중

지난 8월 4일부터 생활관 게임사이트 차단 해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GIST는 생활관 내 게임사이트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이는 본원이 생활관 내에서도 국가 과학 기술 연구망(이하 연구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망 내에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배포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게임, 증권사, P2P, 음란물 사이트 등 업무, 교육 및 연구와 무관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지난 7월 1일 대학원 자체 운영 게시판을 통해 생활관 내 상용망 도입이 건의됐다. 대학원 총학생회는 해당 건의 사항을 입학학생처에 전달했다. 학생들은 게임 사이트 차단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그러나 기숙사와 실험실 내 무분별한 게임 행위에 대한 학생과 교수들의 민원이 있었고, 이에 학교측은 차단정책을 현재까지 유지했다.

7월 8일 연관 부서 관계자와 학생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근영 입학학

생처장 주재로 생활관 내 상용 인터넷망 도입 간담회가 개최됐다. 학생 대표 측은 그간 학교가 생활관 내에서도 인터넷 속도를 이유로 연구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게임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다며 상용망 도입을 건의했다. 이에 정보운영팀 관계자는 상용망 도입 없이도 기존 연구망 내에서 특정 사이트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생활관 내 게임사이트 접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경영진의 의사 결정 이후 게임사이트 차단 해제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6일 간담회 결정 사항을 바탕으로 교수, 대학원생, 대학생 대상 ‘생활관 내 게임사이트 차단해제 1개월 시범 운영 찬반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835명 중 744명이 찬성해, 86%의 찬성률로 시범 운영이 결정됐다. 김근영 입학처장은 “차단 규제 완화 논의는 학생들의 건의 사항을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학교 경영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식 시행 여부 및 차단 해제 시간대는 추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시범 운영은 9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활관 운영위원회와 하우스 운영협의회에서 정식 시행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식 시행이 실행되면 학교의 의사 결정을 거쳐 차단 해제가 이루어진다. 우선 구성원 의견을 취합하여 차단 해제 대상 사이트를 선정한다. 선정된 사이트의 차단 해제 여부는 처장 회의를 거쳐 지스트 학부장을 위원으로 하는 ‘전산망 보안 및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후 총장 승인을 통해 사이트의 최종 차단 해제가 이뤄진다.

게임사이트 차단 해제에도 불구하고, 주식 투자나 가상 화폐 거래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보운영팀은 사이트 해제가 정부 지침 내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사이트를 해제하는 경우 매년

시행되는 과기부 보안 평가, 국정원 연구 보안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보운영팀 박양수 직원은 “차단 해제 대상 사이트가 정부 지침에 위배돼 관련 평가에서 지적받는다면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 지적 사항 불이행시 최대 ‘기관 경고’까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생활관 내 게임 허용으로 예상되는 우려도 있다. 민경숙 학생팀장은 “생활관 내 게임 행위는 학생들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학원 생활 수칙은 11시 이후 게임을 하는 것을 공동생활 방해 행위로 명확히 명시했다. 반면, 대학 생활관 수칙에는 정확한 시간이 명시돼있지 않다. 만약 불편 호소가 많아지면 운영협의회를 통해 벌점 기준을 합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학 생활관 내 게임과 관련된 제도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기범 기자 kiboomkim@gm.gist.ac.kr

# 나눔의 가치를 느낀 신안 섬으로의 교육 봉사 여정

지난 7월 15일(목)부터 16일(금)까지, 2일간 GIST 사회공헌단 피움단(이하 피움단)이 신안신의중학교에서 '찾아가는 과학캠프'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과학캠프'(이하 과학캠프)는 피움단이 학교에 직접 방문해 과학 수업과 진로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 협력, 소외 지역 청소년들에게 과학문화 확산 및 배움의 나눔 정신 실천을 목표로 한다.

## 섬에 있는 학교, 전교생은 31명

신의중은 전교생이 31명으로 소규모다. 조 구성은 여러 학년을 섞어 배정했음에도, 학년에 상관없이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필자가 중학생 때는 같은 학년, 같은 반 외에는 이름조차 몰랐다. 그에 비해 신의중은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덕분에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수업 할 수 있었다.

신안 섬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로 나가는 데 배로 2시간이 걸린다. 배가 뜰 수 없는 날이면 육지와 섬 사이의 이동이 단절된다. 아이들은 대부분 섬 안에서 놀 거리를 찾는다. 육지에서 볼 수 있는 당구장 등의 시설도 일부 존재하지만, 아이들이 놀기에는 마땅치 않다. 섬에 없는 피시방 대신,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낸다.

사교육으로 과열된 육지와 달리, 섬은 대부분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었다. 수업 중 준비한 퀴즈들은 아이들의 학습 능력 증진을 위해 교육과정 외의 난도 높은 내용도 일부 포함했다. 아이들이 교과 과정 외 내용에 적응하지 못해 의욕을 잃을까 염려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떤 문제든 도전을 하며 수월하게 맞혔다. 오답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고, 서른 명의 아이들 모두 한 번 이상 손을 들어 발표했다. 눈을 빛내며 자신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아이도 있었다. 도전적인 태도가 아이들의 학습 능력의 바탕처럼 보였다.

신의중 측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진로 탐색 캠프를 운영하고 여러 과학 키트를 접하는 등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았다. 아이들은 이전에 다뤄본 다른 과학 키트를 언급하기도 했다. 학교 곳곳마다 보이는 과학 키트로 제작된 물건들이 그 사실을 방증했다. 학교 시설 또한 깨끗하고 편리했다. 학교 측은 도서 지역의 지리적 단점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도서 지역의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 봉사 단체들의 지속적 관심 및 도움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 말썽꾸러기 문제아

조별 활동 중에 자리 이동이 끝나지 않아 소란스러울 때 학교 선생님이 다가와 필자에게 말을 건넸다. 해당 조에 배정된 아이가 학교의 가장 말썽꾸러기이니, 주목해서 봐달라는 것이었다. 옆에 앉은 다른 아이들도 맞장구를 치며 가장 문제아라고 말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가끔 말썽을 피울 때도 있기에 그런 아이이겠거니 하는 생각을 했다.

막상 수업에 들어가자 그 아이는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보였다. 누구보다 조의 득점을 위해 열의를 보였다. 수업 중 흥미도 증진을 위해 준비한 퀴즈 중 꽤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한 번에 맞추기도 했다. 다른 문제와 다르게 두 배의 점수를 걸었지만, 교실 안에는 정적만 가득했다. 그 순간 그 아이는 손을 번쩍 들어 정답을 말했다. 초음파 자동차 만들기도 멘토 도움 없이 시행착오 끝에 스스로 해냈다. 물론 학교 선생님이 우려했듯이 과격한 언행과 행동도 있었으나, 멘토인 필자와 일대일 대화를 통해 금방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형적인 '모범생'과는 다른 행동 양상을 보였지만, '문제아'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인지 의문이 들었다.

일반적인 공교육은 한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지도해, 각 아이의 특성에 따라 지도 방식을 변환하기 힘들다. 그러나 과학 캠프 동안에는 한 멘토가 소수 학생만 맡았기에 개인 지도가 가능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아이가 변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된다. 한정된 교육 인프라는 모든 학생의 특성을 반영 할 수 없다 보니, 다수를 따르지 않는 학생은 문제아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학교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닌, 사회의 일원이 되기 전에 거치는 사전 단계이다. 본 사례로 필자는 오늘 터득한 지도법을 바탕으로 추후 과학 캠프에서도 아이들이 공동체에서 공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수업에 몰두하는 아이들

과학 캠프는 총 3부로 진행됐다. 4교시 동안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에도 아이들은 끝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2부 수업은 스마트폰 현미경을 제작하고 관찰하는 것이었다. 관찰을 위해 수업 중간에 스마트폰을 배부했는데, 수업 중 사용으로 참여도가 떨어질까 걱정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주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그 후



지난 7월 신안신의중학교에서 개최된 '찾아가는 과학캠프'의 단체 사진이다.

에는 수업에 집중했다. 눈앞에 있으면 마음이 갈 뻔도 한데 잘 참고 열심히 참여해주는 아이들이 고마웠다.

3부 수업에서는 초음파 자동차를 제작했다. 멘토들도 처음 제작해볼 때 꽤 긴 시간이 걸릴 정도로 어려운 키트였다. 그러나 아이들은 설명서만 보고도 혼자서 척척 해냈다. 먼저 완성한 아이들은 어려워하는 옆자리 친구를 기꺼이 도와주기도 하며 보조 멘토의 역할을 자처했다. 친구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내가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는 배려심과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탐구심이 기특했다.

## 멘토들의 꿈, 아이들의 꿈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얇게 나눈 대화에서도 아이들의 미래와 진로에 대한 고민이 느껴졌다. 얼마나 막막한 고민인지 필자도 잘 알기에 경험을 공유해 고민을 덜어주고 싶었다. 초등학교부터 GIST에 이르기까지 필자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놓았다. 이야기를 시작하자 작게 빛나는 서른 쌍의 눈동자가 한곳에 모이는 것이 느껴졌다. 20대 필자의 꿈 이야기가 10대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랐다.

멘토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아이들의 꿈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꿈을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지 이전 수업 내의 퀴즈 시간에 보여준 기세는 사라지고 수줍어하는 모습만 남았다. 이에 발표의 보상으로 사탕 풍치 한 줌을 제시하자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다. 자신의 꿈은 '스카이다이빙'이라고 말했다. 그 아이를 기점으로 다른 아이들의 꿈들이 쏟아져나왔다. '우주여행', '번지점프', '세계여행', '100만 유튜버' 등 각양각색이었다. 자신의 꿈이 '의사'라고 곧은 자세로 대답한 한 아이 외에는, 흔히 생각하는 꿈의 대표적 예시인 '사'자 직업이 나오지 않았다. 육지와

떨어진 섬에 사는 아이들이지만, 꿈만큼은 섬에 뛰어지 않고 자유로웠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짓궂은 질문도 대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GIST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했다. 오늘 GIST를 처음 접한 아이들이, 과학캠프를 거친 후 진학 의지를 보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과학캠프가 만족스러웠다는 증거인 듯 해 보람찼다.

## 캠프를 마무리하며

오프라인에서 아이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는 교육 봉사는 교습 능력뿐 아니라 상황대처 능력도 성장시킬 수 있었다. 사전에 협의한 아이들의 명찰이 당일 현장에서는 일부 준비되지 않아, 급하게 빈 라벨 용지로 아이들의 명찰을 대신했다. 교구로 나눠준 사물들을 아이들이 장난으로 사용해 위험한 상황을 막느라 진땀을 빼는 일도 있었다. 당일 발생한 여러 변수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다방면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

지식은 나눌 때 가장 가치 있다. 자신에게는 그저 평범한 지식이 상대방에게는 흥미롭고 가치 있는 지식일 수 있다. 이는 지식이 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며 교육이라는 수단이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모두에게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필자가 본 과학 캠프에 참여한 이유이다. GIST 학우들도 교육 봉사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경험해보길 바란다. 멘토인 당신에게도, 멘티인 학생에게도,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 기획

# 김희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위촉된 김희삼 교수

지난 6월 12일 GIST 기초교육학부 소속 김희삼 교수가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지스트신문>에서 김희삼 교수를 만나 앞으로의 자문회의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현법상 자문기구다. 본 자문회의는 ▲거시경제분과 ▲민생경제분과 ▲혁신경제분과 ▲대외경제분과의 4개 분야로 구성된다. 김희삼 교수는 거시경제분과에서 1년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 Q.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린다.

A. 기초교육학부 6년차 교수이고,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 GIST에 부임하기 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10년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 Q. 이전에도 정책자문 활동을 많이 했던데,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나?

A. 평소에 연구해서 제안했던 내용이 결국 정책에 반영되어 세상을 조금이라도 개선했다고 느꼈을 때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독자적인 연구와 통찰을 통해 정책에 대해 의견을 냈을 때 그것이 당장 정책으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도 일관되게 언론 등을 통해 주장을 펼치고 주변 전문가와 공무원을 설득하면 언젠간 그 내용이 사회적 공론장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책 방향이 된다. 그것이 대선 공약 등에 채택되면 정책으로 실현된다. 물론 제안부터 정책 실현까지 길면 10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

## Q. 자문위원직을 수락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A. 이번 자문회의는 그동안의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는다는 의미가 있다. 정권 초기에는 정책의 추진력을 있지만, 공약 이행에 집중하다 보니 성찰의 자세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지금 4기 자문회의는 현 정부의 마지막 자문회의다. 그렇기에 그동안 펼쳤던 정책의 공과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어떤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고 방향을 이야기할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자문위원 위촉 의뢰가 왔을 때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수락했다.

## Q. 자문활동의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

A. 자문회의의 분과별 활동은 각 분과 위원들이 논의하여 선정한 정책 이슈들에 관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한다. 분과회의 후, 부의장은 의견들을 정리해 의장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도 한다. 각 분과회의와 별도로 전체 합동회의도 열린다. 이 때는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해 자문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도 있다.

## Q. 그동안 자문회의에서는 어떤 안건들이 다뤄졌다?

A. 지금까지는 주로 금융, 재정 관련 안건들을 다뤘다. 우선 지난 7월 7일 첫 분과회의에서는 각 자문위원이 앞으로 논의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안건들을 자유롭게 제안했다. 7월 19일 분과회의에서는 디지털 금융시대 취약 소비자 보호, 코로나19 금융지원정책 정상화, \*\*ESG투자 활성화 등을 주제로 다뤘다. 8월 6일 분과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재정분권에 기초한 복지재정 전달체계 개편 등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9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 문제를 주로 다룰 것이다.

분과 간 합동회의에서도 여러 분야에 걸친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11월에는 거시분과와 민생분과가 함께 부동산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또한 가장 최근인 8월 24일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

금융-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어 과학기술과 경제 양대 분야의 자문위원과 전문가들이 공동의 국가적 목표를 위해 머리를 맞대는 드문 자리를 갖기도 했다.

## Q. 관심이 있는 분야와 생각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인적자본의 향상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생산가능인구가 크게 줄어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여 양적인 감소를 보완해야 한다. 미래세대가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학습능력을 갖추고 자기 길을 개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중고령세대들이 소외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무인 키오스크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해지고, 금융 사기를 당하지 않는 등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은 갖춰야 한다. 이는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면서 우리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향후 더 오래 일해야 할 중고령층이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 직장에서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이다.

이처럼 인적자본의 질은 중요하지만 양도 무시할 수 없다. 2020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인구가 유지되는 대체출산율(대략 2.1)을 크게 밀도는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 정도로 지속되면 100명의 부모세대가 50명의 자녀세대를 낳고 50명의 자녀세대가 25명의 손자녀세대를 낳는다. 그렇게 되면 자녀 세대 50명이 주된 부양인구가 됐을 때 노인 100명과 아이 50명을 부양해야 하는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복지, 교육, 국방 등의 국가 시스템도 유지되기 어렵다. 결국 급변한 인구구조에 적응해야 하겠지만, 변화의 속도를 조절해 적응 충격을 완화하려면 주된 출산연령대의 인구가 상당한 규모로 유지되는 향후 10년 동안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려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결혼에 대한 부담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 크기 때문이다.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젊은 세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집값 폭등 사태와 같은 부동산 문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민들의 절망과 좌절, 욕망이 가장 많이 응축된 곳이 부동산시장이기 때문에, 자문회의도 이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지역별로 주택 공급의 시기와 전망, 인구의 규모와 연령 비율, 금리와 대출규제, 임대차 관련법, 부동산 관련 세제, 기대심리와 투기 등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정책의 오류를 성찰하고 앞을 내다보며, 집값 안정과 버블 붕괴 시 대응 등에 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 Q.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할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힘을 내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보자고 얘기하고 싶다. 현재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인데, 이러한 위기 상황일수록 새로운 기회들이 보이게 된다.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많았던 기존의 시스템을 개혁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대학의 판도가 변할 것이다. 한 명의 학생이 대학의 담을 넘어 여러 대학에서 여러 명의 교수를 선택하며 같은 과목을 배우거나 외국 교수의 수업을 듣는 것도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바뀌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학습자들은 더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향적, 미래지향적, 그리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작정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잘 인식하고 디지털 전환 등 세상의 변화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이는 학생 개개인이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인적자본 생산성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적 불균형도 줄이는 방법이다. 우리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미래를 잘 준비해서 세상에 이바지하면서 자신도 행복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박준서 기자 pjsalex122@gm.gist.ac.kr  
최은기 기자 choeungi@gm.gist.ac.kr

\* 현법상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ESG투자: 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소만 보지 않고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및 기업지배구조(Governance)를 고려하는 투자

\*\*\* 디지털 전환: 기업이나 사회에서 IoT,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전반적으로 적용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를 혁신하는 것

\*\*\*\* 합계출산율: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신생아 수

# COVID-19 difficulties for incoming international GIST undergraduates: Perspectives from Vietnam

Due to COVID-19, incoming international undergraduates at GIST have to handle various obstacles ranging from document preparation to fear of infection.

Vietnam is suffering from a dramatic surge in new coronavirus cases. The fourth wave of COVID-19 in Vietnam started from late April till now. The number of new confirmed cases increased consecutively from 5 in April to 9,334 in August. There have been 19 out of 63 provinces that have to observe social distancing rules including Ho Chi Minh city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every aspect of Vietnam. Public transportation is being suspended and most stores are being forced to close. People will be fined severely when going out without proper reasons or without wearing a mask.

For example, COVID-19 makes it difficult for Vietnamese students to finalize their legal documents and receive their visa. Almost all activities are suspended and people are not allowed to freely go out. Khang, incoming GIST student, said, "Due to the widespread of delta variant, my neighborhood is required to strictly follow the social distancing rules and it's extremely inconvenient for me to get my documents legalized." Khoa, another incoming GIST student, said, "Due to the complex pandemic, all of the legalization process takes longer than usual. I planned to take an IELTS exam in February but I had to hand in TOEIC instead due to the fourth wave of COVID-19."

Moreover, coronavirus is getting much more dangerous than ever due to the delta variance. Delta is a SARS-

CoV-2 mutation that is a variant of concern due to its high contagion risk and its longer persistence in the air. The higher the transmissibility of delta variant, the more dangerous it is especially for unvaccinated people who travel overseas.

International students are at risk of coronavirus infection while traveling to Korea. The population of Vietnam is around 98.22 million people and only 1.1% of the population have been fully vaccinated. Khoa said, "I'm worried that I may get infected while traveling to Korea.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cross-contamination among passengers on the flight. Moreover, the quarantine rules are different among countries so I have to keep myself updated every single day."

Because of the pandemic, there are lack of flights between Vietnam and

Korea. Before COVID-19, there were 182 flights from Vietnam to Korea and 381 from Korea to Vietnam every week. The flights were scheduled at various times allowing passengers to freely choose their most convenient time. However, now there are only around 56 flights per week from Vietnam to Korea with very little flexibility.

COVID-19 makes it difficult for Vietnamese students to decide to leave their home country and come to GIST. As international students, they all hope to adjust well to a totally new environment and lead a happy life here. They hope to make many new friends and to have more opportunities to become active members of the GIST community.

Reporter Tran Bao Huyen  
(huyentran041001@gm.gist.ac.kr)

## Four ISTs Conducted Integrity Evaluation

For the 2021 integrity evaluation conducted by the four ISTs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GIST, UNIST, and DGIST), GIST received the lowest overall score for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To improve the integrity of the GIST, the input of IST members on various policies is needed.

### 2021 ISTs' Integrity Evaluation

On the last five integrity surveys for national universities by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ACRC), GIST was ranked the lowest grade at fifth. Accordingly, to improve the IST's integrity as advised by Ministry of Science & ICT (MSIT), the IST's began to conduct their own evaluations from this year. Integrity evaluation will be conducted every year and will be hosted by each IST. And this year, KAIST organized and hosted it.

A total of 1,200 people (300 people each) from the four ISTs were surveyed with a total of 29 items, including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organizational culture system ▲research

field ▲integrity level, with the score set out of 10.

To identify the specific reasons for low integrity scores, integrity evaluation results are classified with the overall score and a member perception score.

GIST received the lowest grade for 'efforts on improving integrity' and 'awareness of anti-corruption policies.' The average overall score of the four ISTs for 'efforts on improving integrity' was 7.29 points, GIST recorded the lowest score with 6.49. In terms of 'awareness of anti-corruption policies', the average score of ISTs was 5.88, but GIST's score was 5.41.

For member's awareness, both 'awareness of improvement in integrity' and 'positive perception of improvement in integrity' were lower than the average.

Also, there have been some cases of direct within GIST. As a result of the survey, 8.3% of respondents 'directly experienced' unfair work orders and 6.3% unfair budget execution.

### Efforts to Improve Integrity

Following recommendations by

MSIT, GIST moved the integrity & anti-corruption tasks from Auditor Office to the Section of General Affairs under the president. In addition, when appointing the next president, 'institutional integrity improvement plan' is being added to the interview evaluation criteria.

The Section of General Affairs said, "Looking at the case of UNIST, which has the highest level of integrity among the four ISTs, the strong will and long-term efforts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are important to improving integrity. When the next head is appointed, we will hold an integrity declaration ceremony and share the results of the integrity evaluation at various meetings to raise awareness of integrity."

The ACRC is presently processing the evaluation of anti-corruption policies to investigate efforts on improving integrity of each department. So executive department submitted 18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to the ACRC for four areas: ▲creating a culture of sharing integrity value ▲reinforcing personal anti-corruption

activities ▲establishing and spreading an honest GIST culture, and ▲ leading the spread of a culture of integrity abroad.

In addition, the Section of General Affairs team is trying to actively promote and educate for the improvement of integrity. They conducted 'research ethics & security education' and integrity education at the same time on June 22, and it will be conducted once more for teachers and researcher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From August 1st to September 10th, the Section of Research Management conducted the 'Wise Research Life Idea Contest' to create a transparent research environment.

In 2022, the integrity evaluation of the four ISTs will be hosted by GIST. Jeong Eui-young, a staff member at the Section of General Affairs, said, "The key of improving integrity is smooth communication and publicity," and asked for not only students but also for all members at GIST to take more interest in improving integrity.

Reporter Eunchan Lee  
(eunchan\_supernova@gm.gist.ac.kr)  
(translation: Seungkyu Choi, proofreading: Ellis Lee)

## 오피니언

### 독자 기고

# 코로나가 물든 20대, 취업 준비 청년 수다회

본문은 프로젝트 <PEOPLE-19>이 6월 6일에 주최한 '취준 청년 수다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난이 심하다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테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 취업=어렵다'라는 등식이 완전히 자리 잡은 듯하다.

2021년은 어떠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자 또 한 번 청년 취업 시장에 한파가 불어 닥쳤다. 그전 까지 청년들은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스펙을 키워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을 합리적 선택으로 여겼다. 그러나 지금처럼 좋은 일자리는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 일자리마저 얻기 힘든 상황에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도 늘고 있다.

매일 아침 독서실과 학원에 출석 체크 하는 대학생, 책과 노트북을 옆구리에 끼고 대학가 카페를 전전하던 취준생, 자격증 취득과 면접 준비 등 각종 스터디 모임에 다니던 젊은이들은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 그들이 생각하는 '일'이란 무엇일까? 감염병 사태 속 취업 전선에 뛰어든 청년 4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소영입니다.

#### 여러분이 일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열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제 정체성과 연결되는 직업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구직활동을 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론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이 매번 열리지도 않거나와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내리는 지하철역 같은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삶을 포기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점점 조급해졌고요.

#### 여러분이 원하는 삶과 예상되는 삶은 무엇인지 들고 싶어요.

일단 현재의 삶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벌고 있지만 진짜 제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어서 단계적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언론사 중에서도 질 좋은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규모가 정말 작더라도 좋은 기사를 생산하는 곳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직접 좋은 언론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수

도 있겠지만, 일단 예상되는 삶은 그렇습니다. 좋은 언론을 만나는 것 혹은 내가 좋은 언론을 만들어 가는 것.

#### 와 청년 실업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사회가 겪게 될 일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취준하면서 대학생 때와는 조금 다른 위치에 서게 됐다고 느꼈어요. 대학생이라 해도 취업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와는 아예 무관하게 사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생이라는 신분은 이 세계를 조금은 더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취준생이 되니까, 작년까지는 사회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제가 이해에 안주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취업시장에 나가 경쟁하다 보면 제가 경쟁상품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는지 계속 따지게 되는 것처럼요. 정말 슬픈 일이죠. 한국 사회는 다른 선진사회보다 경쟁의식이 더욱 만연하고 과도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지양하기 위해 제 옆의 친구들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후략)

전문은 <지스트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내린 결심 가운데, 반드시 하기로 한 것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2020년에는 반드시 취업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지금도 현상이 유지되고 있지만, 당시 코로나 파동이 너무 커고 취업의 문도 많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있었는지 취업이 1년 정도 늦어졌어요. 예전에 어떤 면접 하나를 봤는데 거기서 한국 언론의 진짜 모습을 마주했어요. 또 운동선수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그 언론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처음 깨발렸다면서 자랑하더라고요. 부끄러운 행적이 아니라 성과라고 여기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향취업을 하더라도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입장에 갈 생각이에요.

#### 여러분 주위에, 지금 이 사회에 전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나요? 혹은 코로나19

## 문학상 공모 당선작 발표

제2회 광주과기원 문학상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와 소설 부문에 각 당선작 한 편, 가작 한 편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은 기초교육학부 최서윤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작품을 보면서 문학에 대한 GIST 구성원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학상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상작은 지스트신문 제42~43호에 게재됩니다. 수상자 분들은 필히 사이트를 방문하시어 상품 수령 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소설 부문

##### 당선작 「스위스를 그리며」

이승필

##### 가 작

##### 「옥죄는 줄」

장현수

#### ◇ 시 부문

##### 당선작 「도그마(dogma)」

박지현

##### 가 작

##### 「만유인력의 가을」

최승현



##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송종인

주간 이주형 편집장 최은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LG도서관 102호 GIST신문사  
전화 062-715-5810

이메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  
페이스북 facebook.com/Gistsinmoon

사  
령

#### ■ 사임

책임기자 김하연 (생명, 19)

정기자 윤준영 (전기, 20)

#### ■ 임명

책임기자 이윤정 (생명, 20)